

# KRE리porter 3월 충북지회 간담회 결과

## 1. 회의 개요

- 목 적: 농업·농촌 현장여론 수집, 농산물 판매장 견학
- 일 시: 2019년 3월 5일(화) 11:00~14:00
- 장 소: 충북 단양군
- 참 석: 총 9명
  - 충북지회 리porter(9명): 김형수, 문성호, 서명희, 이한늘, 임현옥, 정화려, 조규달, 조성문, 최종구
- 주요 일정

시 간	일 정	비 고
11:00~12:00	견학	다누리센터 아쿠아리움 (정화려 회원 판매장)
12:00~12:50	점심식사	미감식당 (단양읍 별곡9길 3)
12:50~14:00	간담회	‘농특위에 거는 기대와 과제’

## 2. 주요 내용

### 1) 농업·농촌 현장여론 수집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에 거는 새로운 기대와 과제
  - 김형수: 지난 12월에 농특위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제 준비 기간을 거쳐 4월 24일에 농특위가 출범한다. 큰 틀에서 농어업·농어촌의 중장기 정책 방향, 복지증진, 환경보전, 자치와 자율농정, 먹거리 안정 등의 이슈를 다룰 것이라도 한다. 하지만, 농특위의 인원 정도가 정해졌을 뿐이고 정확하게 어떠한 역할을 하고 과제를 해결할지는 미정이다. 이에 우리 농업인들이 많고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하겠다. 농민은 농사를 잘 짓는 데만 집중할 수 있게 나머지 기반과 구조를 정부에서 잘 마련하고 조정해 주기를 바란다. 예로, 농업인의 기본적인 수익보장, 농산물 가격의 안정,

유통구조의 개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주기를 원한다.

- 최종구: 농특위가 농업과 농촌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마련된 기관인지 아니면 고위공무원의 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해서인지에 대한 불신이 아직 많은 듯하다. 우리가 바라는 농업과 농촌, 그리고 농업인의 삶에 대한 논의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충분히 있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하여 정부와 현장에 있는 농업인 및 당사자와의 소통이 부족한 것 같다. 농업인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조직인 만큼 농업인들의 탄탄한 신뢰와 지원이 있을 때 이 기구와 그 정책이 성공할 확률이 높으리라 생각한다.
- 임현옥: 최종구 님의 의견과 비슷하다. 농특위처럼 새로운 기관과 부서가 생기는데, 그 필요에 대해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다. 이 역시 세금의 낭비이거나 고위 공무원의 자리를 늘려주기 위한 핑계가 아닐까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이미 현존하는 기관이 충분한 역할을 못 한다고 새로운 기관을 또 만드는 것이 과연 현명한 답인가란 의문이 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농업인뿐만 아니라 납세자 당사자인 국민에게 정부가 충분히 소통해야 할 것 듯하다. 제 역할을 십분 해낼 수 있도록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 서명희: 미세먼지가 최근 이슈화가 됐는데 이런 미세먼지가 우리의 농산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염려된다. 특히, PLS제도가 시행되는데 농민들이 아무리 규칙을 잘 지키고 작물에 허용된 농약만 적정량 사용할지라도, 미세먼지의 유해물질 등이 농작물에 잔류하게 되어 판매에 어려움이 있게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농특위에서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해 잘 살펴주고 대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또한, 미세먼지와 관련하여 깨끗한 공기에 대한 중요성과 이에 대한 관심이 커졌으리라 보는데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 중, 환경적 기여에 대해 국민의 이해가 좀 더 커졌으면 한다.
- 문성호: 농작물을 고품질로 다수확 할 수 있는 연구가 많이 되고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 정화려: 회사나 기관에서 일을 하게 되면 승진을 하고, 말단의 일보단 관리와 경영의 일을 하게 되며 연소득도 그에 맞게 올라간다. 또, 그에 따라 사회적 지위도 높아지고 주위로부터 우대와 존경을 받는다. 반면에, 농사를 짓게 되면 일반적으로 정해진 자기의 땅에서 매년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되고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수익은 점점 줄어드는 듯하다. 그리고 계속되는 노동으로 몸은 쇠퇴하고 농사의 일은 점점 힘들어진다. 농업은 마치 장애가 되는 직업처럼 느껴진다. 개인적으로 농사일을 하면서 수익은 적지만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 인식하고 국민에게 기여한다는 자긍심 및 사명감을 가졌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수익적인 보장 및 농업의 가치에 대한 인정을 받지 못하다 보니 지치기도 하고 억울한 감도 있다. 농업인들에게 정신적으로도 힘을 불어 넣어주는 정책을 농특위에서 다뤄주기를 바란다. 첫째로 농업인의 기본소득을 보장해주기를 바란다.
- 이한늘: 농특위의 실질적인 영향력이 얼마나 될지가 궁금하다. 농특위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라고 알고 있는데, 이 기관의 권위와 역할이 말 그대로 ‘자문’에서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수립한 계획을 실질적으로 심의와 의결까지 할 수 있는 더 큰 권위와 역할을 가진 기관인지가 궁금하다. 후자이길 바란다. 농업인은 한국에서 사회적 약자가 아닌가 싶다. 현재 한국에선 농업과 농업인을 멸시하거나 차별하는 풍토가 많이 있다. “할 거 없으면 시골에 가서 농사나 지어야지”란 말이 있을 정도로 농업을 하찮은 직업으로 여긴다. ‘농사꾼’이란 말처럼 농업인을 낮게 보는 일, “촌스러워”란 말처럼 농촌을 하찮게 보는 일 또한 그 예이다. 여성, 장애인, 아동 등과 같은 다른 사회적 약자들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법 제정, 연구 등은 다소 활발한데, 반면 농업인을 사회적 약자로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미약한 듯하다. 농특위법에 지정된 협의 사항(농특위법 ‘제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여러 가지가 열거돼있다. 하지만 ‘농업인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한다.’라는 내용이 독립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다. 농특위는 여

성, 장애인, 아동 등처럼 농업인도 사회적 약자와 비슷한 면이 많다. 농업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농업인에 대한 정당한 대우가 필요하다.

## 2) 농산물 판매장 견학

- 정화려 회원은 채소를 주작목으로 하며, 충북 단양군에 위치한 유월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 내 관광지와 연계한 농산물 판매장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만남을 갖고 직거래를 유도하고 있다.

## 3. 이모저모

